

#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발생 후 1년

## 2024년 1월 기준 국경없는의사회 대응 활동 보고서



2023년 2월 13일 시리아 북서부 알 다나 지역 이동진료소에서 환자를 등록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간호사 ©Abdul Majeed Al Qareh

### 개 요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두 차례 강진과 꽤 강한 규모의 여러 차례 여진이 발생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시리아에서는 몇 시간 만에, 튀르키예에서는 수일 내로 현지 파트너를 통한 대응 조치에 나섰다. 지진 발생 후 수일에서 수주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양국 이재민들에게 의료서비스와 담요 및 위생·조리 도구를 포함한 주요 필수품을 제공했다. 그리고 이후 몇 개월 동안은 식수위생 서비스를 개선하고, 파괴된 의료시설을 재건하고, 지진과 그로 인한 피해를 겪으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 활동을 발전시켰다. 튀르키예에서의 현지 파트너를 통한 대응은 5월 말에, 시리아에서는 지진 발생 6개월 후에 해당 대응을 종료했으며, 이후에도 계속된 활동은 국경없는의사회 정규 프로젝트들에 통합했다.

### 2023년 2월 이전 시리아 및 튀르키예 내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 시리아

국경없는의사회는 2009년부터 시리아에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타 지역 접근 제한 및 치안 불안 문제로 시리아 북서부 및 북동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고정 진료소와 이동 진료소를 모두 운영하며 외상 및 부상 치료, 모성 및 아동 치료, 만성 질환 및 성폭력 치료,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튀르키예

국경없는의사회의 튀르키예 활동은 1999년에 처음 시작했다. 2016년 6월, 튀르키예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허가가 만료되었고, 이 허가는 국경없는의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갱신되지 않았다. 이후 몇 년 동안 국경없는의사회는 대부분 시리아 난민과 망명 신청자로 구성되어 있는 대규모 지역사회에서 종합적 의료서비스 및 정신건강 치료, 환자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단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지속되는 행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활동 지원은 2022년 12월부터 종료했다.

## 지진

2023년 2월 6일, 두 차례의 지진이 튀르키예 남부 및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했다. 첫 번째 지진은 현지 시각으로 오전 4시경 발생했고, 규모 7.8과 7.7의 강진이 9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났다. 지진과 여진으로 인해 59,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튀르키예에서 나왔다. 지진 후 며칠 동안 양국 전역에서 발생한 이재민은 약 8백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시리아의 경우, 13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이дли브(Idlib) 및 알레포(Aleppo) 주를 포함한 북서부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생활 여건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지진은 이미 위태로운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전쟁으로 인해 수천 명이 집을 강제로 떠나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실향민 캠프의 끔찍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다. 지진으로 인해 시리아 소재 의료시설 55개가 손상되고 일부는 완전히 파괴되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제한되었다.

안타깝게도 지진으로 인해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한 명이 시리아 북서부 이дли브에 위치한 자택 잔해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또 다른 직원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단체들이 2023년 3월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 캠프에서 아동 대상 정신건강보건증진 활동 중이다. ©Tom Casey/MSF

## 국경없는의사회 지진 대응

### 튀르키예

행정적 제한 때문에 튀르키예에서 전개하는 모든 국경없는의사회 구호 활동은 이메세 이니셔티브(Imece Inisiyatifi) 및 야르딤 콘보유(Yardim Konvoyu), 마야 바크피(Maya Vakfi) 등 현지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비정부 단체들은 튀르키예 내 아디아만(Adiyaman) 및 가지안테프(Gaziantep), 하타이(Hatay), 카흐라만마라스(Kahramanmaraş), 킬리스(Kilis), 말라티아(Malatya) 지역에서 활동했다.



2월과 3월에는 현지 파트너 단체들을 통해 의료·물류 물자·식량·물을 지원 및 배급했다. 또한 실항민들이 추운 날씨를 견딜 수 있도록 담요 및 전기난로, 보온 내의를 포함한 구호 물품과 위생 키트를 배급했다.

대응 초기에는 임시 캠프에 샤워실과 화장실을 마련하여 식수위생 지원을 제공했다.

지진 강도와 막대한 인명 및 재산 손실을 겪은 사람들은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 3월, 4월, 5월에 국경없는의사회가 지원하는 현지 단체들은 튀르키예 의료보건 종사자, 자원봉사자, 수색구조 팀, 아동, 성인 등 지진으로 영향을 받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심리사회적 지원과 정신건강치료를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은 개별 및 그룹 세션을 통해 제공되었다. 심리사회적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령 그림 그리기 및 춤추기, 음악 듣기와 같은 간단한 활동들이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5월 말, 튀르키예에서 긴박한 지원 수요가 대부분 충족되었을 무렵 국경없는의사회는 활동을 종료했다.

## 수치로 보는 국경없는의사회 대응 활동

튀르키예 지진에 대응하여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현지 파트너 단체들을 통해) 아래 지원을 제공했다.

- 물 **430만 리터**
  - 위생 키트 **38,154개**
  - 식사 **390,500끼**
  - 담요 **9,171개**
  - 텐트 및 방수포 **2,192개**
  - 화장실 **350개**
  - 샤워 **173개**
  - 컨테이너 **65개**
  - 물탱크 **61개**
  - 장작 **53.1톤**
  - 카흐라만마라스 병원에 엑스레이 기계 **1대** 제공
  - 하타이 교육 및 연구 병원에 양수기 **1대** 및 탱크 제공
  - **10,100명** 대상 그룹 및 개별 세션을 통한 심리사회적 지원 제공
- 지출 - 1,184만 유로**  
**2024년 전망 - 활동 종료로 예상되는 지출 없음**



2023년 2월 시리아 탈 아마르 지역 실항민 등록 센터에서 구호품을 배급중인 국경없는의사회 팀 © Omar Haj Kadour



## 시리아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 팀이 오랫동안 파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한 지 3시간도 채 안 되어 긴급 대응 활동을 시작했고 직원들에게 비상경보를 발령했다.

지진 발생 후 첫 몇 시간 동안은 의료진이 의료시설에 도착하는 수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으며, 약 200명을 치료했다. 또한 이дли브 북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구급차를 보냈다. 첫날에는 이дли브를 비롯한 시리아 행정구역 전역에 있는 23개의 의료시설에 긴급 의료 키트를 지원했고, 현지에서 대응하는 팀을 보강하기 위해 국경없는의사회 의료 인력을 파견했다. 겨울 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실항민들에게 담요와 필수품도 지원했다.

지진 발생 후 몇 주에서 첫 몇 달 동안은 임시 거처 및 식량, 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식수위생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환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구급차를 제공하기도 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진료소와 병원의 의료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아트메(Atmeh) 소재 화상 전문 병원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의사회 외과의를 포함해 의료 인력을 제공했다. 또한 정신건강 관련 응급 처치와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항민 임시 거처 및 수용 캠프에 이동진료소를 설치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시리아 북서부 주민들을 위해 트럭 40대가 넘는 의료 및 비의료 물품을 제공했다. 물품 및 장비를 여러 차례 지원했으며,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고 있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의료 키트 35 m<sup>3</sup>, 필수 물품 50 m<sup>3</sup>, 유아용 우유 30,000개, 가족용 텐트 234개, 수술 키트 3개를 시리아 아랍 적신월사(SARC)에 두 차례 지원했다. 주로 중증 화상 환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아트메 소재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은 해당 지역 소재 병원 30개에 의료 및 비의료 장비를 여러 차례 지원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밥 알-하와(Bab al-Hawa) 및 다라트 이자(Darat Izza), 이дли브, 아타리브(Atarib) 등 지역에 있는 약 10개의 병원에 의료 장비를 보냈다.

4월과 5월에는 장기적인 의료 수요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했고, 특히 정신건강 치료를 보강했다. 국경없는의사회 팀은 특히 아동을 위한 놀이 및 사회심리적 지원 활동을 진행했고, 캠프 이동진료소에서는 정신건강 상담을 계속해서 제공했다. 또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상 환자들에게 후속 치료와 재건 수술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дли브주 소재 병원에 외과 직원을 지원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의료서비스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이 특히 중요했던 이유는 지진으로 인해 이전부터 의료시설이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이었던 심각한 의료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국경없는의사회는 이дли브 소재 병원 및 진료소 3곳을 재건했으며, 진디레스(Jindires) 지역에 신규 모성 센터 1곳을 마련할 계획이다.

8월에도 국경없는의사회는 계속해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진디레스 및 사르마다(Sarmada), 지스르 알 슈거(Jisr Al-Shughur), 알 말랜드(Al-Maland), 하림(Harim), 살킨(Salqin) 등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에서 이재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정형외과 치료 제공, 정형외과의 교육, 정형외과 병원에서 감염 예방 및 통제 조치 개선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인지하고 직원을 확충하여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이дли브 및 알레포 소재 의료시설을 재건 및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갔으며, 마샤드 루힌(Mashad Ruhin) 의료센터에서는 유입 환자 수용을 위한 확장 공사를 했다. 또한 해당 의료시설의 의료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지원했다.

지진 발생 6개월 후 피해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속적인 대응 활동을 시리아 북서부 내 정규 활동에 통합하여 노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하며 긴급 대응 단계를 종료했다.



## 수치로 보는 국경없는의사회 대응 활동

---

- 깨끗한 물 **8백만 리터** 제공
- 이동진료소 및 의료시설 외래환자 진료 **198,477건**
- 위생 키트, 취사용품 키트, 여성용 월경 키트 등  
구호 물품 **110,835개** 배급
- 빵 **38,255개**
- 담요 **28,645개**
- 정신건강 상담 **8,026건**
- 매트리스 **8,005개**
- 텐트 **6,411개**
- 물탱크 **1,000개** 설치
- 화장실 **620개**, 샤워실 **90개** 점검 및 보수

**지출** - 긴급구호자금 1,710만 유로. 정규 프로그램 자금 940만 유로. 총 2,650만 유로

**2024 전망** - 2024년 시리아 북서부 활동 예산 - 2 천 3백만 유로

이 중 대부분은 2023년에 정규 프로그램에 통합된 지진 대응 활동을 포함한 정규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다. 해당 예산에는 바르셀로나 운영센터가 진디레스 소재 병원에 산과 병동을 마련(지진 대응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나 2024년으로 시행이 연장됨)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00만 유로도 포함되어 있다.